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케어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조 문기* · 장세철**

(e-mail: kito2@hanmail.net · chang@hanseo.ac.kr)

目 次

- I. 서론
 - II. 본론
 - 1. 민족단체의 조직과 복지사업의 전개
 - 2. 민족단체의 케어지원활동 전개
 - 3. 민족단체의 케어의 현황과 과제
 - III. 결론
-

1. 서 론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개호보험(介護保険)제도 실시(2000년) 이전부터 정부의 중앙집권적 정책을 기반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개호보험의 실시로 서비스의 무대가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으로 옮겨지면서 민·관·공이 서비스체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가를 통해 개호(Care)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주체는 사회복지법인과 NPO(비영리법인)단체, 민간기업 등 노인복지시설(개호서비스사업소)의 활동으로 확대되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개호보험제도의 원활한 평가와는 반대로 개호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외래강사, 사회복지전공(사회학박사), 일본 케어매니저.

** 교신저자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바로 한계부락(限界部落)의 산간 농어촌지역의 저소득 노인들이 그러한 존재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운 산간벽지 등과 인구밀도가 희박한 농어촌지역의 복지, 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한계부락의 고령자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 우익세력의 텃세에 인권침해의 대상의 표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재일코리안 고령자¹⁾ 역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케어링(Caring)²⁾에 관한 문제로 언어 문제, 문화의 차이, 경제적 기반의 약화, 자립지원 미비 등의 문제가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일코리안 민족단체의 활동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재일코리안 민족단체에 의한 개호지원 활동 중 고령자의 노후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인권 단체의 좌담회 주제로 거론 되어 왔다. 1991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계간지 『sai』가 「在日韓国・朝鮮人問題学習センター」에 의해 창간되었다. 이후 「在日韓国・朝鮮人問題学習センター」는 KMJ(사단법인) 「大阪国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로 개칭되었으나, 『sai』는 현재까지 계속 발행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주제로 한 연구는 개호분야 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제생활, 주거, 질병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개호욕구 문제, 가족 내의 부양문제를 주제로 한 2세·3세의 부양문제, 부양에 있어서의 아이덴티티와 문화의 차이점, 경제적 현황과 사회보장문제, 건강문제 등이 연구되어 왔다.

2000년 이후부터 조사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연구의 범위도 확대 되었으며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 각지에서 조사연구로 시도 되어왔다. 예를 들면 「大阪市の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食文化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川崎市の場合との比較視点から」(黄,2001), 「介護保険制度下の在日コリアン高齢者；2003年大阪生野区調査から」(垣田,2005), 『泉州地域在日高齢者福祉実態調査報告書』(泉州地域在日高齢者福祉実態調査実行委員会,2007), 「在日コリアン高齢者・日本人高齢者の抑うつに関する比較研究」(文,2008), 「福岡市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生活と福祉サービスの利用に関する調査」(平野ら,2008), 『コリアンコミュニティにおける高齢者居住者の生活と住まいからみた地域再生の課題；西成区在日コリアン多

1) 재일코리안 :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현재는 조선 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칭한다. 1980년말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진 용어이며 김현(2006) 등의 재일코리안 연구의 맥락을 기본으로 용어사용에 있어서 아이덴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재일코리안으로 통합 사용하였다.

2) 상호관계를 의미하며 케어를 받는 사람과 제공자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개호와 혼용사용

住地域を中心として』(こりあんコミュニティ研究会,2011) 등이 있다.

한편, 「ケアハウスにおける在日外国人高齢者への新たな生活支援の展開 ; 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ケアハウスへのリロケーションから考える」(金, 2012)의 연구는 이러한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지역중심의 관점에 노인복지시설로 연구의 시점을 전환했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개호문제에 있어 고령자에게 친숙한 문화, 즉 모국어 환경이 있는 시설을 선택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노인복지시설 리로케이션(relocation)에 대하여 고령자가 편한 문화적 케어 및 생활지원, 공생, 연대의 시점으로 설명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은 지극히 부족하다며 시설 인프라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현황이 언급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만큼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재일코리안 고령자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노출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개호지원 활동을 지원해온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이하, 조총련)을 다음과 같은 시점을 통해 조직과 개호지원활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재일코리안의 일상생활지원에서부터 고령자의 개호지원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단과 조총련의 조직과 운동을 살펴본다.

둘째, 각 단체의 대표 기관신문인 민단신문³⁾과 조선신보⁴⁾를 통해 개호지원 활동에 대해 중심으로 기재된 내용을 고찰 하였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이하, 후생성)의 개호정보(介護情報)공표시스템을 이용해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연구는 각각 이념을 달리하는 민족단체가 내세우는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1차적 조사연구와 일본 내의 공적기관에 의해 공개된 개호정보 데이터

3) 민단신문은 2011년 현재 재일코리안과 관계기관에 의해 매년 10만부가 발행되고 있다. 1946년 3월에 민단의 전신인 재일조선건국축전 청년동맹 기관지로서 발행되었지만, 이후 신조선신문, 민주신문, 한국신문 등의 명칭 변천을 거쳐 1996년 5월 창간 50주년을 계기로 민단신문이 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민단신문은 재일코리안의 유력 미디어가 되고 있다.

4) 조선신보는 전후의 조총련의 활동과 재일코리안의 삶을 비추는 미디어이다. 이 신문은 재일코리안의 권리옹호, 민중의 상호 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주 3회(월, 수, 금) 1만부가 발행된다.

중에서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2차적 조사 연구로 진행되었다. 일본의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술한 각 신문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제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후생성이 직접 관리 위탁 하고 있는 개호서비스 정보망을 통하여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분석하였다.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시스템(<http://www.kaigokensaku.jp/>)을 통해 「在日」, 「韓國」, 「韓國語」, 「文化」, 「朝鮮」, 「朝鮮語」 등의 복수의 키워드로 검색을 시도 하여 검색된 노인복지시설의 정보를 분석하였으며, 재일코리안 인구가 3만 이상인 거주지(大阪、兵庫、京都、愛知、東京・神奈川)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정리 하였다.

본론에 앞서 재일코리안 고령자와 국적(여권상의 표기)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자면 국적과 남북의 지원관계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조선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임시용 여권이 발급된다. 또한 조총련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선국적 활동가가 민단의 간부로 활동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재일코리안을 둘러싼 환경은 대한민국의 정권의 교체와 맞물려 변화되어 왔다. 매우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얽혀진 시기에는 조총련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냉전시대적인 의식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다.

II. 본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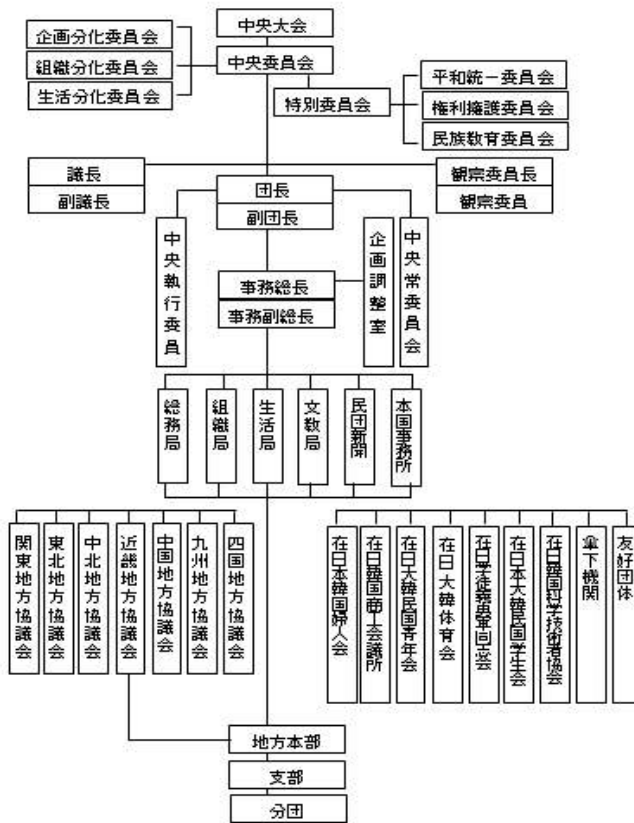
1. 민족단체의 조직과 복지사업의 전개

재일코리안의 일상생활지원부터 고령자의 개호지원까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단의 조직과 복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단의 원형은 일제의 패망 후에도 일본에 체류하는 약 200만 명의 재일코리안이 전국 각지에서 형성한 조직에서 탄생 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을 규합하여 1945년 10월에 결성 된 것이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이다. 그러나 조련은 좌파에 의해 지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같은 해 11월 16일 도쿄 재일한국인 3,000 명을 모아 조선건국촉진 청년동맹을 결성

했다. 그 외에도 다음 해 1월 20일에는 신조선건설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 두 단체를 주축으로 20여의 민주세력을 규합해 1946년 10월 3일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이 결성 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 일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같은 해 9월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団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민단은 1994년 거듭 명칭 변경을 시행해 거류 두 글자를 제하고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 되었다.

<표1> 민단의 조직 구성



자료) 在日本大韓民國民団、<http://www.mindan.org/>

민단은 일본 각지에서 지방조직을 계층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지방본부, 지부, 분단, 반 등으로 구성되어 지방본부 48개소, 지부 290개소, 분단 118개소, 반은 1,366개소로 운영 되고 있다. 임원은 세 기관(집행 기관 · 의결 기관 · 감찰 기관)으로 나누어, 집행기관의 장은 임기를 3년으로 원칙적으로 3선을 금지

한다. 그 산하 단체로는 상공회의소, 부인회, 청년회, 학생회, 체육회 등이 있다.

민단사업을 크게 나누면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으로 이어지는 조직정비·활성화사업, 문화사업, 소수민족 사회교육·차세대 육성사업, 생활지원 서비스사업 등이 있다. 그중 민단의 복지사업 전개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조직은 재일본 한국부인회이다. 부인회는 지금까지도 특별양호노인홈(요양원)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민생에 초점을 두고 복지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 시킨 신문은 민단신문이다. 민단의 산하단체인 생활국과 연계하여 일본국내의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연금 및 노후생활과 관련 된 실태를 보도하였다. 또한 전술한 부인회의 활동을 각 시부지국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민단의 구체적인 복지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 되는 것이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이다. 민단은 재일코리안의 민생(생활)문제에 대해 상담창구를 마련해 문제해결을 일본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대상자는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넓혀왔다. 「동포생활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재일코리안의 다양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센터에 이임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연금 고령자문제에 대한 대처 및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특별 급부(지원)금의 요청이며 각 지부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민단과 공생하는 또 하나의 단체인 조총련은 1945년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재일조선인이 결성 한 조직 중 하나이다.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 관동(關東)조선인 모임이 조직된 후,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등에서도 조직이 만들어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조선신보의 전신인 조선민중신문이 창간되는 동시에 10월 15일 재일조선인 연맹이 결성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 하자 북한을 사수하는 강령을 정한 재일조선민주민족전선(이하, 민전)이 새롭게 결성되었다. 민전은 일본 공산당 민족대책부 지도하에 반미, 당시 요시다(吉田) 정권에 반대하여 재무장의 슬로건과 주일 미군의 무기운송을 저지하는 등 실력 투쟁을 펼쳤다. 그 결과 일본 정부와 대립하고 일본 정부의 행동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여 일본의 공산당과도 결별을 하게 된다.

1954년 6월, 중국·인도의 평화 5원칙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등을 원칙으로 하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재일조선인을 북한의 해외공민으로 하는 북한의 외무장관의 성명이 그러한 배경에서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해외공민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중국과 북한에서는 거의 국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북한에의 귀속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이러한 정책 하에 북한의 집회를 강령으로

1955년 5월 25일에 결성 된 것이 조총련이다.

조총련의 전체조직은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에 47개의 지역분부를 두고 있다. 지역분부는 중앙본부의 결정과 정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제반 활동을 기획, 조직, 홍보하고 관하의 계층별 단체, 사업체, 학교를 지도하고 있다. 각 지역 본부는 관할지역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단결시키고 민족교육 문화사업의 발전과 동포의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총련의 회원은 거주 지역에 설치된 지부와 분회에 소속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있다. 산하단체에는 상공업자, 청년 학생, 여성, 각 분야의 전문가, 종교인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계층별 단체와 기업, 전문기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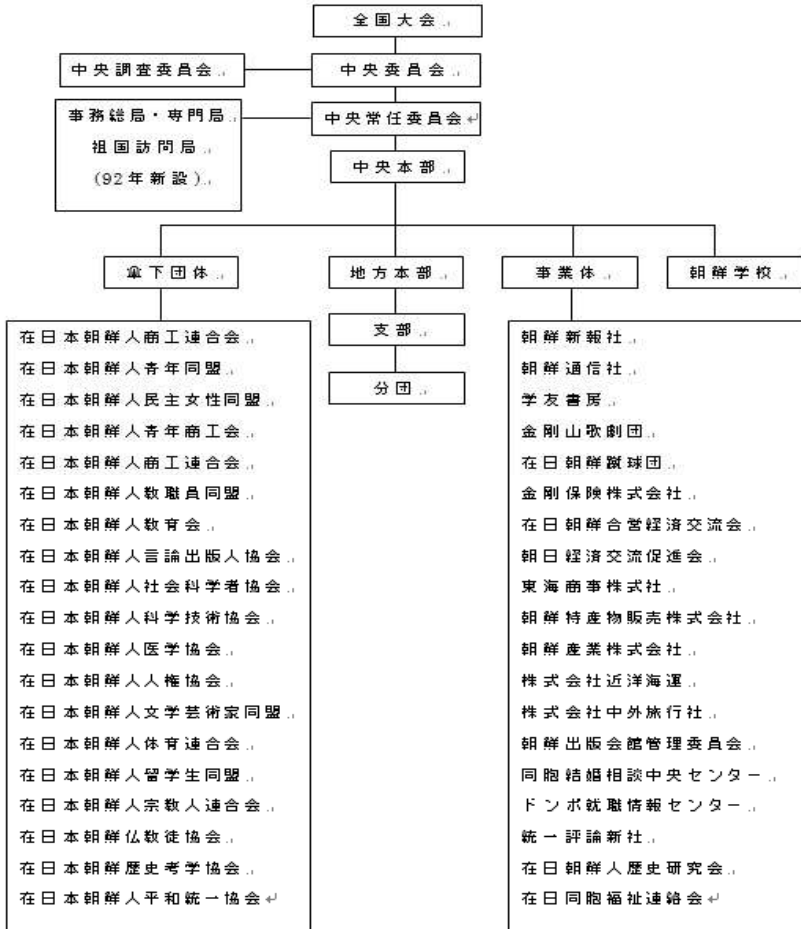
조총련은 민단과 달리 복지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福祉連絡会」 「在日本朝鮮人医学協會」, 「在日本朝鮮人人權協」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福祉連絡会是 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에 시작한 모임이다. 또한 在日本朝鮮人医学協會는 1977년 창립되어 현재 동서 본부와 5개 지부에 의료법인을 갖추고 있다. 지역 동포의 생활보호와 건강증진, 조선학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在日本朝鮮人人權協는 1994년에 결성된 재일코리안의 옹호와 생활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보험 노무사와 사회복지 연구자 등으로 구성되며, 연2회 회보를 발행하고 있다. 인권활동의 일환으로 재일코리안 고령자, 무연금자 문제 등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2000년 개호 보험 제도의 출범과 함께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일본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 지부를 활용하여 재일코리안 고령자 노인복지시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활동은 민단과 조총련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민단신문과 조선신보에 게재되고 있다. 이러한 신문기사가 체계적으로 정리 된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정리하였다. 검색 단계로는 개호보험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1998년 5월 15일부터 2011년 5월 1일까지의 기사를 검색하였다. 또한 기사의 검색단어는 「老人」, 「福祉」, 「看護」, 「ケア」, 「介護」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였다. 검색된 340건의 문서를 참조하면서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개호지원 활동의 다양한 전개를 살펴보았다.

<표2> 조총련의 조직구성



자료) 國際高麗學會日本支部(2010) 『在日コリアン辭典』 明石書店、pp196

2. 민족단체의 케어지원활동 전개

재일코리안 민족단체 신문인 민단신문과 조선신보에는 개호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무연금자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자기부담액(보험금)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실려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 4월 이전의 개호보험 준비기, 2000년부터 민족단체의 케어지원 태동기, 2005년 부서의 케어지원 활동의 정체기, 2007년 이후를 확장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호보험 준비기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8년 후반부터 기사를 살펴보면 재일코리안 고령자는 대부분이 일본의 국민연금제도에서 사실상 배

제되어 왔기 때문에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일코리안 무연금자는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10% 부담이라 해도 큰 부담이다.⁵⁾ 라는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의 준비와 더불어 8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자국민에게 홍보를 하였으나, 재일코리안 고령자는 인식도가 낮은 그들과는 상관없는 사회보험으로 인식 되어진 시기이다. 이런 뒤늦은 준비와 더불어 본격적인 실태조사는 그로부터 1년 후 시작 되었다.

1999년 오사카에서는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문복지 상담창구 「大阪老人総合情報相談センター」가 개설되었다. 이 상담창구는 일본 전국에서 첫 케이스이며, 지역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일코리안 욕구를 행정시책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상담창구의 상담원으로는 민단의 추천을 받은 재일코리안 출신이 배치되었다. 이것은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촌이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재일코리안 고령자는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기본대장을 기초로 한 재일코리안 고령자(오사카, 17,587명)의 생활 실태 및 요구를 파악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⁶⁾. 일본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자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급급하였으며 외국인 고령자의 문제는 대책 없이 시행 직전에 실태를 파악하였고 정확한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2000년 이후 개호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민족단체의 케어지원 활동 태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호보험을 사용하는데 있어 언어문제의 해결대책에 힘을 쓰게 된 것은 2002년 6월 민단 오사카본부이다.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해 오사카부내의 사업장 1,472개소를 소개하며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복지가이드북』과 『재일 코리안고령자를 위한 회화집』을 2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이 서적은 오사카부(大阪府)와 오사카시(大阪市)의 협력하에 부내관련 사업장 3,4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라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입소 환경이 충실한 시설, 재일코리안 고령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 등으로 분류 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로 인정받은 70개소의 사업소 내용에는 노인케어가 필요한 경우 한국어로 대응이 가능함 또는 재일코리안 직원 상주 등의 특징이 서술 되었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은 일본 사회복지·의료사업단의

5)民団新聞. 1999年 8月 18日

6)民団新聞. 1999年 12月 15日

지원을 받았으며 가이드북과 회화집 각 1,000 부를 제작하여 산하의 민단 지부와 지역자치 단체의 복지상담창구 등에 배포했다. 이러한 연구는 재일코리안 고령자가 각각의 요구에 맞춘 최적의 노인복지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케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또한 재일코리안의 언어와 습관 등을 인식한 케어인력이 늘어나면서 섬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⁷⁾.

NPO 법인을 모체로 한 「在日コリアン高齢者福祉推進會」가 오사카에서 운영하는 생활지원센터 「바다」가 2003년 10월에 개설되었고 재일코리안 고령자에게는 무료상담을 하는 등 고령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⁸⁾.

효고현(兵庫縣) 고베시(神戸市) 나가타구(長田区)에는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데이서비스 센터 「하나」가 개설되었다. 운영모체는 NPO 법인 「神戸定住外国人支援センター (약칭 KFC)」이다. 나가타구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이다. KFC는 지진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고 많은 지원자들과 함께 피해지역 거주 외국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⁹⁾. 2000년부터 2005년 민족단체의 케어지원 태동기에는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케어문제와 언어지원 대책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이 있었으며 소규모의 민간단체들이 민단과 더불어 케어지원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2005년부터는 케어지원 활동의 정체기다. 개호보험법이 주거비, 광열비 등을 별도 부담하는 제도로 개정 되어 이용자의 이용료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재일코리안 고령자는 이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또한 재일코리안 고령자가 이용하는 소규모의 복지단체는 경영의 부담을 크게 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민단은 2005년 개호보험 개정의 영향으로 무연금 고령자의 구제와 국민연금 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임시 구제조치가 더 많은 지자체에서 강구되도록 호소하였다. 또한 이미 구제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공적연금 상당액에 상당하도록 특별급부금의 증액 등의 요망 활동을 각 지방 본부 및 지부 단위에서 더 강하게 촉구하였다. 2007년에는 600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복지수당으로 고령자 특별급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고령자 특별급부금의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효고현으로 노인수당이 월3만엔이다(효고현의 가산 지급분 포함).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1만

7)民団新聞. 2000年 4月 12日

8)民団新聞. 2003年 8月 15日

9)民団新聞. 2003年 11月 12日

엔 전후이며, 장애인에게는 2만엔 전후가 많은 지자체도 있다¹⁰⁾.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단본부·지부의 복지사업은 사회복지법인 「ハナ集いの家」 인가를 받는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단 직영 요양원(특별양호노인홈)을 개설하지 못하고 오사카 부내의 각 지부에서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해 민족성을 중시하는 개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개설에 협력 하여 왔다.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케어지원 사업을 위한 민족단체의 역할 중에서 민단과 조총련은 때로는 동일한 주제를 보도하는 등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연금문제와 기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조총련의 기관 신문인 조선신보에 기재되어 있는 중점 기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¹¹⁾.

개호보험 준비기인 2000년 이전부터 존재 해온 의료법인들을 기반으로 민단 보다는 일찍 개호보험을 준비해온 조총련이 1998년 의료법인 동우회 공화병원(共和病院)에서 노인보건시설인 「ハ一モ二一共和」(오사카시 이쿠노구)를 9월 1일에 개설한 것이 보도 되었다. ハ一モ二一共和병원은 1967년 3월 1일 직원 전원이 재일코리안이다. 민족단체가 세운 입원시설을 갖춘 일본 최초의 병원으로 오사카에 설립되었다. 17명의 직원과 32병실로 시작된 병원은 내과, 외과, 소화기외과, 신경내과, 정형외과, 방사선과, 혈액투석과 같은 다양한 진료 과목을 갖춘 종합 병원으로 발전했다. 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 북한외 의학발전과 국제적인 의학교류 확대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동 해왔다. 또한 생활환경 조사(음주, 흡연, 식생활)나 영양 조사, 작업환경이 열악한 구두제조 공장 노동자의 건강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 결과를 재일본 조선인의학협회(이하, 의협)의 학술심포지엄과 일본의 의학회 등에서 발표하여 의학연구에 크게 기여했다고 조선신보는 평가했다¹²⁾.

조총련은 일본 전역에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지부가 존재하고 있다. 조총련 히메지(姫路市) 서부지부는 「同胞アリアン会」를 개설했다. 同胞アリアン会是 1995년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의미 있는 삶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또한 여행이나 꽃놀이 등으로 동포의 교류가 깊어져 왔지만, 1세대들이 모여 토론하고, 오락을 즐길 수 있거나 하는 구체적 장소는 없었다. 이에 노인복지법 상의 여가 시설로서 대지 15평의

10)民団新聞, 2005年 5月 25日

11)지면상 중요 기사내용만을 간추려 기재하게 됨.

12)朝鮮新報, 1997年 3月 11日

조총련 히메지 서부지부의 1층을 이용한 것이다. 개설 후에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으로 히메지시로 부터 30만엔과 노인클럽 운영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¹³⁾. 조총련 역시 개호준비기에는 의료법인을 기반으로 고령자의 케어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민단과 같이 각 지역의 지부를 통해 소규모의 단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2000년 이후인 민족단체의 케어지원 활동 태동기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일코리안의 관점(케어지원 센터, 하트폴 히가시 대표 신만수)에서 실시까지 9개월이 된 개호보험의 문제점과 개호보험 내용의 이해문제, 무연금자 문제, 심리치료의 필요성, 폐쇄성 등을 지적하였다. 폐쇄성은 재일코리안 고령자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며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수년 동안 이국에서 생활 해 온 경험에서 폐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측 하였다. 노인 간호에 대해서도 부모 부양은 자녀의 책임임을 운운하면서 여성(며느리)에게 맡겨 버리려하는 경향이 뿌리 깊게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호보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오늘날 삶의 터전을 마련 해준 선조의 여생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며, 이러한 사회의 구축은 차세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¹⁴⁾.

2002년 7월 기사에서는 개호보험 제도 출범 후 2년 경과의 그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다. 그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시설의 정비 지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 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는 것으로 동포고령자의 경우 외에도 제도적 문제인 무연금 고령자의 존재를 비롯해 고유의 불안 요소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의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문제점을 전했다.

문제점으로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대상자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연금이 없는 노인의 경우 의료 보험에 가산되어 개호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미납의 경우 관공서에서 독촉장 · 납부서가 발송되지만,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경우 과연 읽어보고 그 정보를 파악 할 수 있을 지가 문제였다. 또한 보험 서류는 그대로 방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었다. 케어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새로운 요개호(要介護)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보험료 미납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일에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본래는 10% 부담인 이용료가 30 %가 된다. 개호보험료가 미납되면, 막상 서비스를 받고자 해도 서비스의 양이 축소되어진다.¹⁵⁾.

13)朝鮮新報, 2000年 7月 5日

14)朝鮮新報 2001年 1月 10日

15)朝鮮新報 2002年 7月 3日

NPO 법인 「アランはんしん」이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2004년 12월에 개설되었다. 그 건물은 조총련 효고현 니시노미야 지부의 한 층을 재건축한 것으로, 시설에는 온돌이 완비되어 민요를 노래하는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다¹⁶⁾.

2005년부터의 케어지원 활동의 정체기가 찾아오지만 조총련은 2005년 민족 교육사업과 복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일반화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을 표명했다. 그 중에서도 복지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노인케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재일코리아 사회의 가정에서도 부모의 노후와 케어문제가 절박한 생활상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동포들은 복지측면에서도 민족 차별을 받고 있어 일본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갔다고 해도 언어와 생활양식, 문화의 차이로 인해 고독하게 보내고 있다. 우리는 동포 사회가 절실히 원하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동포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모든 조직에서 복지사업 체계를 확립한다¹⁷⁾, 라며 조선신보를 통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2006년에는 효고현 니시고베 지역에서 동포를 지원하는 NPO 법인 「코리아 생활센터イオ」 데이서비스센터가 개설되었다. 데이서비스를 실시 하는 효고현내 노인복지시설로는 2004년 12월에 오픈 한 「アランはんしん」에 이어 2번째가 된다. 100평의 부지면적에 온돌과 다다미, 건강, 운동기구, 침대, 휠체어, 2개의 목욕탕, 노래방, 비디오 장치 등을 구비하여 설립되었다. 이미 입소문으로 사전 예약이 100 %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이 남성노인이지만 일본인 계약자도 있다. 「イオ 神戸」라는 명칭에는 우리를 키워 준 1세에 감사하고 1세들이 세운 전통과 상부상조의 따뜻한 동포 사회를 계승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¹⁸⁾.

2007년 이후 민족단체의 케어지원 확장기에는 도쿄도 아다치구 도쿄조선 제 4 초중급학교에서 데이서비스센터 「朝日」가 개설되었다. 이 데이서비스센터의 특징은 조총련 결성 이후 처음 민족학교에 개설 된 교육, 복지 사업을 하는 복합시설로 도쿄 조총련 지부에서 도시 행정 허가 신청을 받아 처음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노인복지시설인 것이다¹⁹⁾.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총련의 고령자 케어지원 활동은 주로 교토와 효고, 아이치 등을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총련은 지역의 민족학교와 연계하여 인재 육성 및 지역에 수요가 많은 소규모 복지사업(케어서비스 사업) 실적을 쌓고 있다.

16)朝鮮新報, 2004年 12月 25日

17)朝鮮新報, 2005年 9月 27日

18)朝鮮新報, 2006年 9月 8日

19)朝鮮新報, 2007年 4月 20日

3. 민족단체의 케어의 현황과 과제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제도²⁰⁾에 따른 개호정보를 공표 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중에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지원센터의 지원 툴을 이용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 전술하였던 여러 키워드를 사용해 검색하여 복지시설의 기본정보에서 법인(시설)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그 자료를 정리하였다.

재일코리안의 거주인구가 3만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검색한 결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일본에서 152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도부현 별로 보면 오사카(97개소), 효고(27개소), 교토(17개소), 아이치(1개소), 도쿄·가나가와(4개소)가 존재 하였다. 그 중에서도 오사카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재일코리안의 39.88% (2008년 12월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개호예방 사업소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표3>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개호보험서비스 현황 (단위:개소)

| 介護サービス種類 | 地域別(在日コリアン人口30,000人以上) | | | | | |
|--------------|------------------------|----|----|----|-----|----|
| | 大阪 | 兵庫 | 京都 | 愛知 | 神奈川 | 東京 |
| 訪問介護 | 40 | 10 | 4 | 0 | 2 | 2 |
| 訪問看護 | 2 | 0 | 6 | 0 | 0 | 0 |
| 訪問リハビリテーション | 2 | 0 | 0 | 0 | 0 | 0 |
| 通所介護 | 18 | 10 | 0 | 1 | 2 | 2 |
| 通所リハビリテーション | 2 | 0 | 0 | 0 | 0 | 0 |
| 福祉用具 | 4 | 0 | 0 | 0 | 0 | 0 |
| 居宅介護支援 | 16 | 2 | 2 | 0 | 0 | 0 |
| 特定施設入居者生活介護 | 1 | 0 | 2 | 0 | 0 | 2 |
| 認知症対応型共同生活介護 | 2 | 0 | 0 | 0 | 0 | 0 |
| 介護老人福祉施設 | 3 | 5 | 3 | 0 | 0 | 0 |
| 介護老人保健施設 | 6 | 0 | 0 | 0 | 0 | 0 |
| 介護療養型医療施設 | 1 | 0 | 0 | 0 | 0 | 0 |
| 合 計 | 97 | 27 | 17 | 1 | 4 | 6 |

자료: 介護サービス情報公表システム(개호예방사업까지 포함 한 현황임).

20) 개호서비스 정보의 공표 제도는 개호 보험법 제 115 조의 규정에 따라 개호서비스 사업소(복지시설)에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도도부현 지사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 도도부현 지사는 그 정보를 홈페이지 등으로 공표하는 제도이다.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한 경우 보고 된 정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조사 할 수가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지자체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한 제도로 납입 보험금액의 양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양적인 서비스에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제일코리안 고령자에게는 개호서비스 지급과 개호서비스의 제공부분의 지역간의 격차는 큰 문제이다. 예를들어 도쿄지역에 시설이 없어서 오사카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원래 개호보험제도는 지역보험이며, 시정촌이 보험자로서 제도를 실시 할 책임이 있다. 65세 이상의 제1호 피보험자의 노인이 납부 하는 보험료와 제2 피부양자가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3년마다 개호보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3년간의 보험부비의 전망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개호보험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호보험사업계획은 외국인 고령자의 케어문제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일코리안 고령자 노인복지시설은 일본인 전용의 서비스 사업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에는 한글을 사용한 카타카나식 표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ソナム、パダ, サラン, ハナ, アリラン 등이 있다. 이것은 코리안 민족성을 상징하는 의도로 명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의 기본 정보에서 개호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 또는 개호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한 특색 등을 자세하게 체크 해 보면 개호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특색은 민족성을 표명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베시 나가타구에 있는 H 주간보호센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노인복지시설 정보공개예시

| H 주간보호센터 | |
|----------|--|
| 운영방침 | ①언어, 문화가 다른 제일 한국· 조선인 고령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개성이 존중되는 시설로 운영 된다. ②한국·조선의 문화와 식습관에 맞춘 식사메뉴, 레크레이션 운영한다. ③인종 차별이 없는 쉼터를 제공한다. ④한국 · 조선어 회화가 가능한 직원을 전담 배치 |

자료 : 효고현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시스템 자료 중 발췌

제일코리안 고령자 노인복지시설의 설립과 아울러 우리식 개호의 현상과 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0년 이전부터 의료법인의 영향을 받아 사업을 전개 하던 에루화(エルファ)는 2005년의 민족단체의 케어지원 정체가 속에서도 사

업을 확장하였고, 20007년 주변 민족단체의 선구적인 케어지원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루화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루화가 활동하고 있는 교토지역의 「모아 (more) 넷」 활동은 다민족개호의 특징적 모델로 소개된다.

교토코리안 생활센터 에루화²¹⁾는 재일코리안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및 사업을 실시, 교토부민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28일 교토시 미나미 구에 개설되었다. 그 전신인 에루화는 1998년 의료법 주택서비스사업소으로 후시미구에 먼저 개설되었다. 많은 재일코리안에게 충실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에루화는 노인을 위한 컴퓨터로서의 「ハナマダン」을 제공하면서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나 홈헬퍼를 파견하는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2000년 4월부터 시작된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1999년 11월 교토에서 개호보험의 지정을 받은 주택서비스사업소 에루화는 홈헬퍼 파견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월1회 스터디그룹을 조성 하였으며 1세의 노후 불안과 고독을 궁지와 보람으로 바꾸자는 슬로건을 걸고 노인을 위한 도우미 역할, 가사간병·신체 케어에 대한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려 하였다²²⁾.

또한 재일코리안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우리식 데이서비스센터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도 연구를 거듭해 왔다. 에루화의 직원들은 노인 도우미의 역할, 1세 고령자의 특성 등을 각각 경험한 케어체험도 하면서 토론을 거듭하였다. 거기서 이끌어 낸 우리식 데이서비스센터에 필요한 5요소는 ①우리 친구 ②우리 음식 ③우리 놀이 ④우리 환경 ⑤우리노래이며 이에 따라 재일코리안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체조 노래를로 에루화는 타령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요리와 우리식의 놀이문화, 장식, 한글로 진행되는 체조 등 고령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배려하였더니 이용자의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2001년에는 에루화는 마이니치신문이 주최하는 개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개호상을 수상한 이유는 복지의 사각지대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호 서비스를 실시한 부분에 있었지만, 앞으로 일본인 이민자의 케어를 비롯해 향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족성을 배려한 케어방식이 높게 평가 되었다.

에루화는 민족의 케어를 실천하기 위해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었다.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문제는 재일코리안이 가장 잘 안다는 발상에서 같은 동일

21)에루화 : 노래를 하는 중에 흥겨움이나 즐거움을 나타낼 때 내는 말
22)朝鮮新報. 2000年 3月 10日

민족의 케어 인재를 육성하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호사업의 방문개호원(홈헬퍼)을 육성하기 위해 민족교육을 받은 동일민족 사람을 채용하고 있었다.

NPO법인 교토 코리안 생활센터 에루화 케어서비스 사업의 현재 실적은 표5와 같다.

<표5> N P O法人京都コリアン生活センターエルファの事業内容

| 서비스 | 介護サービス事業所 | 職員 | 対象者 | 実施日時間 |
|------|---------------|----|-----|--------|
| 訪問介護 | 訪問介護事業所エルファ | 28 | 82 | 毎(月~土) |
| 居宅介護 | 居宅介護支援事業所エルファ | 2 | 73 | 毎(月~土) |
| 通所介護 | ハナマダン東九條 | 14 | 60 | 毎(月~土) |
| | ハナマダン南京都 | 4 | 13 | 火・木・金 |
| | ハナマダン洛北 | 10 | 41 | 毎(月~土) |
| | ハナマダン洛西 | 5 | 29 | 毎(月~土) |

자료: 에루화2011年度事業報告書

현재 에루화는 인권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족학교 학생들의 위문, 대학의 연구원 및 한국 학교교원 등의 연수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종교, 가수, 학생 등이 한일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에도 정치적 체제 차원에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민단과 조총련의 개호지원 활동을 홍보하는 민단신문과 조선신보를 보면, 에루화의 활동은 민단신문에 기사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조선신보 또한 민단의 노인복지시설의 홍보는 찾아볼 수 없다. 즉 보이지 않는 사상의 구별로 제일코리안 고령자의 노인복지시설의 케어정보조차 양분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의 대상자인 노인과 노인을 지원하는 복지현장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구분은 무의미하다 할 수 있다.

Ⅲ. 결 론

민족단체의 케어지원 활동 시기를 2000년 4월 이전의 개호보험 준비기, 2000년부터 민족단체의 케어지원 태동기, 2005년부터의 케어지원 활동의 정착기, 2007년 이후를 확장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확장기의 대표적인 모델로 에루화의 활동을 고찰하였다.

민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복지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의 재일코리안에 대해 생활, 법률, 복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오사카시 고령자종합복지상담센터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재일코리안 무연금자 문제와 노후문제의 불안은 재일코리안 고령자가 역사적 희생자라는 민족의식을 자극하게 되면서 민단의 각지부의 마찌카도 데이하우스(오사카센복지부, 후쿠시마지부 등)와 같은 소규모의 데이서비스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개호보험법에 준한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지자체의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지금의 한국의 경로당의 수준에 불과 하였다.

개호보험이 시작된 2000년 이후에는 오사카민단 본부를 통해 개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홈헬퍼양성 사업과 각종 노후에 관련된 세미나들이 개최되었다. 각종 홍보물을 발간하여 재일코리안 개호의 특수성과 언어의 문제성 등을 어필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동시에 소규모 단체들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김치, 나물 등 한국적 가정요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3년 돗토리현의 본부에서는 부인회의 활동으로 재일코리안 독거노인(130세대)을 위한 자원봉사대(아지메)까지도 발족되었다.

이후 개호보험을 통한 민간시설들이 등장하면서 NPO법인 「パダ」, 「アレック櫻木」, 「ハナの會」, 「生野サンボラム」 「西成サランバン」 등이 개호보험의 등장과 함께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설은 민단의 케어지원 활동의 영향을 받으며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민단은 사회복지법인 「ハナ集いの家」을 설립했으나 내부적인 조직력의 문제로 인해 특별양호노인홈과 같은 중증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단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일코리안 고령자 개호지원 활동의 모델이 되었던 사회복지법인 고향의 집(1988년 설립)과 현재까지도 연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 하고 있다.

한편, 조총련은 민단과 같은 일본 각 지역에 130개 시부를 마련하여 민단과 동일한 미니데이서비스센터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조총련의 조직의 일부인 재일조선인 의학협회 등의 노력으로 1998년 「ハーモニー共和」이 설립되면서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의료와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그리고 의료법인共和병원의 부속기관을 통해 생활시설보다는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영향으로 교토에 「エルファ」가 설립되면서 효고(兵庫), 교토(京都), 아이치(愛知) 등의 조총련의 시부의 개호지원 활동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

또한 개호보험의 시작으로 NPO법인 「アリランはんしん」과 「コリアン生活

センターイオ神戸」 등이 설립되어 지역의 시부와 조선학교의 교류를 통해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문화에 맞는 우리식 개호(ウリ式の介護)를 주창하게 되었다.

우리식 개호는 재일코리안의 독특한 문화성을 존중하기 위해 5개의 요소를 노인시설의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고안하였다. 즉 우리 친구, 우리 먹거리, 우리 놀이, 우리 환경, 우리 노래를 접목하여서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케어링 관계에 있어서 이문화적 의식을 완화하는 매개체로 활용 하고 있다. 또한 민족교육과 복지사업을 강조하면서 조선학교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민족단체의 케어지원 활동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단과 조총련의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케어지원 활동 전개에 있어 정치적 체제의 차원에 의해 이분화 되어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개호보험제도의 운용의 문제에 따른 지역적 편차의 해소이다. 개호정보공표 시스템의 검색을 통한 재일코리안 고령자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오사카(大阪) 97개소, 효고(兵庫) 27개소, 교토(京都) 17개소, 아이치(愛知) 1개소, 도쿄·가나가와(東京·神奈川) 4개소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개호보험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지역보험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오사카 지역에 재일코리안의 38%가 거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셋째, 생활시설(특별양호노인홈)보다는 재가복지시설인 데이서비스센터 중심의 사업소가 대다수이며 운영이 영세한 사업소가 대부분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시설의 대부분은 재일코리안 고령자만을 위한 전용시설이 아닌 지역의 일본인 고령자들도 같이 생활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는 각 지역의 개호보험 사업계획의 단계에서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복지대상 주민이 아니라 관리대상인 외국인으로 취급해온 일본의 현 외국인관리법의 문제점이 낳은 것으로 개호보험사업 계획에 있어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욕구에 대한 파악과 그 지역의 수요를 감안한 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다음 연구를 위한 목표로 제시 하고자 한다. 먼저 재일코리안의 케어활동 지원에 있어 민족단체의 영향에 대한 고려와 민족단체의 지원 현황에 대한 실제적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단, 조총련뿐만이 아닌 종교단체, 기업 등을 포함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일코리안 고령자가 이용함

에 있어 개호보험의 당당한 피보험자로서 일본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고찰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參考文獻】

- 라경수 「일본의 다문화주의와 재일코리언-‘공생(共生)’과 ‘동포(同胞)’의 사이」 在外韓人研究、Vol.22 No.-、2010
- 박용구 「재일코리언의 문화적 갈등과 분화하는 정체성」 한국일어일문학회, 2008
- 이종구 「재일동포고령자의 복지와 지역운동」 국제지역연구 12-3、2003
- 지충남 「재일한인 사회단체 네트워크연구: 민단, 조총련, 재일한인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지역학회, 2008
- 川村千鶴子 『「多民國家日本」と多文化共生論~多文化都市・新宿の深層』 明石書店、2008
- 國際高麗學會日本支部 『在日コリアン辭典』 明石書店、2010
- 金賢 『いま現在が分かる！在日コリアン』 株式會社九天社、2006
- 金贊汀 『朝鮮總連』 新潮社、2004
- 尹基 『風のとおり道:もうひとつのふるさと「故郷の家」』、中央法規出版、2001
- 在日コリアン高齡者生活ネットワークハナ「研修會 報告集」在日コリアン高齡者生活ネットワークハナ事務局、2008
- 金春男 「文化的背景に配慮した在韓・在日外國人高齡者の老後生活の支援:在韓日本人と在日コリアンのための老人ホームをとおして」 『社會問題研究』 59、大阪府立大學人間社會學部社會福祉學科、2010
- 金永子 「多文化・多文化共生福祉の創造」 『社會福祉學』 48(1)、2007
- 徐正禹 「在日コリアン人權運動の理論構築について」 『勞働運動研究』 400、59-67、2007
- 趙文基 「在日コリアン高齡者の介護問題-二つの社會調査にもとついて」 『桃山學院大學社會學論集』 43(1)、桃山學院大學總合研究所、2009
- KMJ(社)大阪國際理解教育研究センター 『Sai』 vol.65、2011
- 京都モアネット (<http://www.kyoto-more.net/index.htm>)
- 在日本大韓國民團(<http://www.mindan.org/>)
- 在日本朝鮮人總連連合會(<http://www.chongryon.com/>)
- 民團新聞データベース (http://www.mindan.org/shinbun/shinbun_index.php).
- 朝鮮新報(<http://jp.korea-np.co.jp/>)2011,10,30

要 旨

本稿は、在日コリアン高齢者にとって日本の介護保険制度はどうあるべきかという問題を究明するための研究である。在日コリアン高齢者への介護支援活動の歴史的展開を探り、データベースの分析を通して現状を把握し、現在の課題を抽出し、その検討を進めた。

まず、その歴史的展開の一端を、在日コリアンの日常生活支援から高齢者の介護支援まで活動を展開してきた民団と総連に焦点を合わせて紹介した。さらに、介護サービス情報公表支援センターが作成したデータベース検索を通じ、在日コリアン高齢者への介護支援活動の現状を整理した。その結果、介護サービスの提供部分については地域間格差が存在していることや、サービスの種類が通所介護サービスに集中しているため選択肢のないサービスを強いられる問題が生じ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して、最後に、在日コリアン高齢者を対象にした介護支援活動の限界を補うために近畿地域において在宅サービスを提供し、先駆的なモデル事業を展開しているエルファの活動を検討した。これによって民族性を重視した介護支援活動の可能性も示されるに至っ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在日コリアン高齢者、介護支援、介護保険、在日本大韓民国民団、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ウリ式介護

투 고 : 2013. 8. 31
1차 심사 : 2013. 9. 14
2차 심사 : 2013. 10. 5